

# 다이애나 왕세자비, 에펠... 영화로 만나는 그들의 이야기

### 실존 인물 다룬 영화 개봉 '스펜서' '루이스 웨인' '킹 리처드'

올 봄 '에펠', '킹 리처드' 등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잇따라 관객과 만난다. 먼저 지난 16일 왕비가 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찾기로 결심한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스펜서'가 개봉, 5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하고 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인류 역사상 사진이 가장 많이 찍혔던 여성으로 전 세계가 열광한 로열 패션의 아이콘이었으며 20세기 통틀어 그 어떤 스타나 정치인보다도 더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

영화는 왕실 가족이 샌드링엄 별장에 모여 보내는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느끼는 감정을 집중적으로 담아냈다.

'트와일라잇' 시리즈, '세버그' 등으로 유명한 배우 크리스틴 스투어트가 다이애나 왕세자비로 분했으며 이번 영화로 전 세계 여우주연상 27개 석권에 이어 올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 중 현재 가장 유력한 수상자로 언급되고 있다.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 등을 만든 세계적인 건축가 구스타브 에펠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 '에펠'은 23일 개봉했다.

파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에펠탑이 완공되기까지의 과정과 이에 얽힌 사랑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마르탱 부르블롱 감독의 영화로 사랑했던 여인 애드리안(에마 매키)과 재회한 구스타브(로망 뒤리스)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높이 300m의 철탑을 짓기로 결심하고, 이후 애드리안 남편의 방해와 애드리안의 희생을 겪으며 결국 에펠탑을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두 사람의 멜로 연기도 눈길을 끌지만, 에펠탑의 건축 원리와 과정을 훑어보는 재미가 있다.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비너스·세리나 윌리엄스 자매를 키워낸 아버지의 삶을 바탕으로 한 '킹 리처드'는 오는 24일 관객과 만난다.

킹 리처드는 두 딸이 태어나기 2년 전 78페이지에 달하는 챔피언 육성 계획을 세우며 비너스와 세리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결심한다. 미국의 빈민가에 살면서 이렇다 할 직업도 없는 리처드 윌리엄스(윌 스미스)가 딸들에게 '귀족 스포츠'인 테니스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자매의 재능을 믿었던 그는 끝까지 테니스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고, 덕분에 '백인 스포츠'인 테니스의 역사를 새로 쓴 흑인 여성 선수가 둘씩이나 탄생할 수 있었다.

레이날도 마르쿠스 그린 감독은 스포트라이트를 자매가 아닌 리처드에게로 옮겨 그가 어떻게 딸들을 세계 정상 자리에 올려놓는지 그 과정에 주목했다.



스펜서



킹 리처드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천재 고양이 화가로 분한 영화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는 오는 4월6일 극장에 걸린다.

윌 사프 감독이 '고양이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화가 루이스 웨인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했으며 루이스와 그에게 사랑의 감정을 알려준 에밀리(클레어 포이), 고양이 '피터'가 만들어가는 그림 같은 로맨스를 보여준다. 또 '더 페이버릿:여왕의 여자'로 제91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배우 윌리비아 콜맨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가슴 속 울음...남도의 서정과 가락

### 나주 출신 조수일 시인 '모과를 지나는 구름의 시간' 출간

"시와 시인은 오랜 동경이었습니다. 까치 발인 채 서성이며 기웃거리던 지도 스무 해가 되어갑니다. 갑히, '나의 당신'이라 칭해 봅니다. 사막을 걷듯 들끓었던 젊은 날에도 나의 당신이 있어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습 니다."

나주 출신 조수일 시인이 시산맥 제33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 작품집 '모과를 지나는 구름의 시간' (시산맥)을 펴냈다.

'수막새의 미소', '민들레 골목', '목련에 울다', '눈꽃', '영산나루에서', '노두의 저물 녘' 등 모두 60 여편의 작품은 남도의 서정과 가락에 기반한 시다. 시의 전반을 관통하는 시적 언어가 있다면 바로 '울음'이다. 가슴에 울음을 안고 지금까지 삶의 행로를 걸 어온 시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문정영 시인은 "조수일 시인은 울음을 진 실로 울 줄 안다. 시인의 가슴에 울음이 없다면 시의 행간 속에서도 감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배면에 드리워진 감정들이 느슨하거나 가벼운 정조로 흐르지 않는다. 시적 작상이 만만치 않아 특유의 분위 기를 환기한다.

"줄곧 나를 읽고 있는 당신./간밤 내 폐이



지 어디쯤에 붉은 밑줄 그었을까요 // 살아내는 일이 / 봄별 걷는 것 처럼 아득해/ 농 의도록 방치한 채 살아온 슬픈 물집 들/ 그 숨겨온 흉 터를 꽃우니라, 한때 당신은 그랬 지요..."

위 시 '나를 아세요?'는 시인의 지향을 엿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오래도록 추구해왔던 시에 대한 열망을 읽을 수 있다. 오랜 인내를 거쳐 풀어낸 고백의 단상은 담담하면서도 깊이가 있다.

정운현 시인은 추천사에서 "그의 시는 때 로 얽드려 고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한편 조수일 시인은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를 졸업했으며 2017년 '열린시학'으로 등단 했다. 제1회 송수권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했 으며 현재 광주시교육청 산하 중학교 사서 로 재직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태어나지 않은 말들을 기다리는 여정

### '의사 시인' 김완, 네 번째 시집 '지상의 말들' 펴내

"말보다 말 없음이 큰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오지 않는 말들을 기다리며 서성이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살아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맞이 넘쳐나는 세상이라고 한다. 도처에서 말이 '칼날'처럼 일어난 다. 저마다 자신의 말이 정의이며 진리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의사, 시인, 여행자... 김완 시인을 지칭 하는 아니 규정하는 말들이다. 그 단어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층위 로 수렴되기도 한다. 한편으로 '외롭고 쓸쓸 한' 이미지를 환기한다.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김완 시인이 네 번째 시집 '지상의 말들' (천년의 시작)을 펴냈다.

'그리운 풍경에는 원근법이 없다', '너털 강 편지', '바닷속에는 별들이 산다'에 이어 네 번째 발간하는 시집에서 시인은 말에 천 착한다. 임동화 시인이 추천사에서 그의 시 쓰기를 "오랫 소문과 비명으로 뒤엎킨 말의 부조리를 뚫고 나가기 위해 '견고 또 견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창작은 "미처 태어나지 않는 말들을 기다리는" 밀고 먼 여정이지만 그림에도 그는 "등 굽은 농부의 곡괭이' 질처럼 여일하게 자신의 시간의 발을 일군다.



"세상은 달아날 수 없는 곳인데/ 자신을 달래며 견딜 수 없을 때까지 /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종 략) / 세상은 잡히 지않는 신기루 같 은 것/ 말이 살아 있는 한 혼도 살아 있네! / 궁리한

그대가 파도칠 때/ 지상의 말들이 가루로 부서져 내리네"

표제시 '지상의 말들'은 오래 침묵 끝에 건져 올린 존재와 시에 관한 묵시록 같은 작품이다. 부조리한 세상을 대면하는 시상, 비유가 인간 본질에 대한 추구를 초월한다.

김수가 평론가는 "탁월하고 감동적인 시편들이 주로 서정시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시의 아이러니이지만 이 아이러니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인 지도 모른다"고 평한다.

한편 김완 시인은 2009년 '시와시학'으로 등단했으며 2018년 송수권 시문학상 남도시 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N잡 시대'

### 팬데믹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반 관련 서적 출간 잇따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업으로 소득을 올리는 'N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책 발간이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책을 분석한 결과, N잡을 주제로 한 도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관련 책이 36.3%에 달했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전년 대비 54.4%, 지난해는 2.5% 증가했다. 새로 출간된 이 분야 책은 2020년 60종에서 지난해 83종으로 늘었다.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부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 관련 책이 인기가.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투잡하기',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벌기', 'SNS로 돈 벌기' 등이 이 분야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들었다.

경제적 이유를 떠나 퇴근 이후 '부캐'로 활동하며 또다른 삶을 사는 사이드 프로젝트 관련 서적도 꾸준히 나온다. 코미디언이자 웹툰 작가, 유튜버인 안가연의 '이번 생은 망한 줄 알았지?'는 사이드 프로젝트 시작법과 부캐 육성법을 조언하는 책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이너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담치 납품/배송) 1톤 냉동담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임금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



피쉬데이(주)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100억원, 사원수 20여명 규모의 평균나이 33.6세, 20~30대의 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농수산물 유통전문 업체입니다. 광주/전남남북도 전역에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피쉬데이 직영점을 포함 백화점, 하이퍼마켓 입점운영과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마켓 등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